

예배회복 I.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매너리즘입니다.

1. 매너리즘

‘매너리즘’이란 이탈리아 1520년대 르네상스의 후기에서 시작해서 1600년대 바로크가 시작하기 전까지 지속된 유럽 회화, 조각, 건축과 장식 예술의 시기를 말한다. 그 당시 독창성이나 발상적인 것 없이 그냥 정형화된 것으로 고정되어버린 현상을 가르친 말을 매너리즘이라고 한다. 오늘날 매너리즘은 흔히 현상 유지만 하려는 자세, 또는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나아지는 것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다’로 이해되기도 한다. - 나무위키

신앙에도 ‘매너리즘’ 현상이 있다. 신앙에 나타나는 매너리즘의 형태를 점검해보자.

(1) 기대감이 없다.

신앙에 매너리즘이 있으면 예배에 기대감이 없어진다. 성경에서 ‘기대감’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키워드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대감이야 말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말한다.

[히브리서 11:1, 6]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대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마음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하신다. 그에 대한 증명은 간단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보고싶은 마음이다. 그것이 기대하는 마음이다. 사랑에는 권태기와 매너리즘이 없다. 그러므로 침체기가 있을 수 없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가? 없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이다. 무서움으로 벌벌떠는 두려움이 아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을 말한다. [권혁승 교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대상을 무시하는 마음이다. 함부로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다. 바로 이 마음이 매너리즘이다.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라기 1: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상태와 마음, 주인을 무시하는 종의 태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영적 매너리즘’이다.

(3) 매너리즘의 상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적당주의를 말한다.

말라기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레위의 언약'에 관한 것이다. 무너진 레위의 언약에 대한 갱신이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적당주의에 있었다. 적당주의가 바로 매너리즘이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드리지만 하면 된다는 마음이다. 다시 말해 '준비'없는 예배를 말한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 1장에 담겨져 있다.

[말라기 1:7-10]

7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으레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0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ㄱ) 7절 - 더러운 빵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매너리즘이다.

ㄴ) 8절 - 눈먼 짐승,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

"너희 총독에게 바려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 이 말씀은 대충 적당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일침이다. 예배는 급하게 출근 전에 대충 먹고 나가는 누렁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매너리즘이다.(총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총독의 비유를 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자체가 놀랍다)

ㄷ) 9절 - '너희가 으레 하는 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와 같은 매너리즘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으레 하는 일"이라 말씀하신다. 해야하는 일이니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예배가 '일'이 되어버린 으레 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린 상태가 '예배의 매너리즘'이다.

ㄹ) 10절 - 제단에 피워진 헛된 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를 '헛된 불'이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런 예배가 싫다고 하신다. 이런 제물을 받기 싫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돌아 보아야 한다.

2.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1) 하나님과의 사귀이 없다.

삶에 예배와 기도, 말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사귀이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사귀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말한다. 만남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마음이 사귀이이다. 서로 알지만 사귀이 없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귀이는 반드시 매너리즘으로 간다.



(2)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 내면에 예배를 드린 콘텐츠의 고갈

궁금한 것이 없으면 연구하지 않는다.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면 연구한다. 그 자체가 노력이다. 예배 드리기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연구하고, 기대하고, 알았다면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내면 안에 영적인 콘텐츠가 살아난다. 내면의 영적 콘텐츠가 찬양의 가사와 맞물리기도 하고, 설교자의 말씀에 맞물리기도 한다. 그래서 동의하며 아멘한다. 기뻐하며 감사해한다.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일주일 동안 아무생각 없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잠깐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깊은, 더 높고 넓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즉,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왜 불이 붙지 않을까? 태울 장작이 없기 때문이다. 그 장작이 콘텐츠이다. 심령에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내면에 영적 콘텐츠가 확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1:18-19]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는 말씀에 집중하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

(3) 갈망이 없다.

갈망은 기대감이다. 왜 내 안에 갈망이 없는지, 기대감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내 삶에 가장 최고의 예배가 언제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만약 그 시점이 까마득하게 먼 시점이라면 지금 당신은 영적 매너리즘 가운데 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하늘을 침노하며 다윗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갈망 말고 다른 갈망이 있다면, 그 모든 갈망을 밀으로 정렬시켜야 한다.

(4) 구체적으로 환경을 변화 시키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이다.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주변에 예배에 방해받는 일이 있다면 차단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시간 은혜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이 은혜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예배의 자리 등에 변화를 주라. 결국 이와 같은 마음가짐,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의 한 가지 초점이 영적 매너리즘에서 나올 수 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내 마음을 채우자.’

[말라기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세우는 일이 올해 우리 교회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내 삶과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